



한은,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

최 원 선임연구원

- 한은의 「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」 결과에 따르면, 2011년 4/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강화 기조로 전환될 전망이다.
 -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해외 위험요인과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침 등으로 완화 기조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.
 - 국내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낮은 수준의 완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.
 - 국내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정부의 지난 6월 29일에 발표된 ‘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’의 영향으로 강화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.

- 또한, 신용위험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 -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건설·부동산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, 경기 불확실성 등 경영애로도 증대하여 상승세가 커질 전망이다.
 - 대기업의 신용위험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세가 전망됨.
 -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대출구조도 취약해 향후 여건 변화 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상승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.

- 한편, 대출수요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.
 -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내부자금 조달이 감소한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 - 대기업 대출수요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수요 증가폭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.

-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의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, 일반자금 대출수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제한,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
(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, 한은, 10/5)